

西歐의 電子市場 現況과 展望

本稿는 최근 日本電子工業會에서 歐洲 市場 調査團을 結成, 英·獨·仏 등 6國을 訪問하면서 懇談會, 見學 등을 통하여 現地 資料를 수집, 分析하여 제출한 報告書에서 발췌한 것이다.

機器業體의 進出에 이어 部品業體의 現地 生産을 도모하고 있는 日本의 執念과 자세는 우리 業界에 시사하는 바 크다.

(編輯者 註)

I. 序 論

우리 調査團은 淸짜인 일정으로 歐洲 6國을 뛰다시며 하면서 訪問하였다. 別表 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플레이와 失業者의 增大에 따른 歐洲各國의 苦心은 커가고 지금 歐洲各國의 首腦들은 「Stagflation」의 克服에 專心 專力하고 있다.

이같은 經濟情勢 가운데서도 우리와 密接한 關係에 있는 電子工業은 어떠한가, 또한 앞으로 어떻게 展開될 것인가를 現地 第一線에서 活躍하고 있는 여러사람을 만나 確認하였다.

日本은 물론이지만 유럽에 있어서의 電子工業은 他産業에 비해 別表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今年度 經濟成長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予想되는 가운데에서도 플러스 成長이 이루어질 것으로 予想되고 있다. 그러나 家庭用電子機器에 있어서는 構造의으로 問題點도 있어 生産性이 낮아 成長率은 대폭적으로 鈍化되고 있다. 81年度의 유럽 전체적인 電子工業의 成長率은 家庭用電子機器에 있어서는 -5%, 産業用電子機器에 있어서는 +5%, 전체적으로는 제자리

걸음 내지 약간의 마이너스 상태가 現地の 實情이다. 사실 家庭用電子機器에 있어서는 오디오 部門은 OEM 또는 極東地域製品으로 壓倒되고 있었으며, 期待되던 컬러TV도 제자리 걸음, 비디오의 本格化는 期待밖으로 그 저조한 이유를 否定할 수는 없었다.

表 1. 歐洲 主要國 消費者物價 上昇率

		(前年比: %)		
國 別	年 度	80	81	82
		西 獨	5.5	5.8
프 랑 스		13.5	13.3	15.7
英 國		18.0	12.1	11.7

表 2. 歐洲 主要國 失業者數

國 別	時 期	80年 9月	81年 9月
		西 獨	940,000
프 랑 스		1,450,000	1,810,000
英 國		1,890,000	2,990,000

表 3. 歐洲 主要國의 經濟展望

國 別	年 度	GNP 實質成長率	
		'81	'82
西 獨		-1.5 %	2 %
프 랑 스		-0.5 "	1.75 "
英 國		-1.5 "	0.25
이 탈 리 아		-0.75 "	1.75

* EOCED 81年 7月 調査.

이같은 現象에 있으나 歐洲의 各企業들이 家庭用電子機器에 대해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고 필립스, 텔레폰켄, 구룬더히, 지멘스, 톰슨프랜드, 쏘 등은 제가꿈 系列化, 集約化를 推進하

여 體制를 굳히고 있다. 한두개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필립스는 유럽에 있어서의 採算性이 없는 家庭用部門을 閉鎖함과 동시에 海外에 拠點을 얻어 美國의 마그너복스, 실바니아, 스파스코프 등을 買入하였고 또한 구룬디히와의 合資로 體質強化를 企圖하고 있다. 톰슨社は 獨逸의 中堅메이커인 놀드멘디를 買入, 싱가포르의 生産拠點을 합쳐 家庭用部門의 強化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家庭用電子機器의 需要는 어떠한가? 西伯林 電子展에서는 스테레오 TV, 비디오, 비디오디스크, 디지털오디오 등은 家庭用分野의 期待製品으로 꼽히고 있으나 과연 팔릴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는 現地の 견해는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이같이 消費의 沈滯가 予想되고 또 하나의 問題는 消費者의 性向에 맞는 製品을 出荷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스테레오 TV에 있어서의 디자인도 新製品으로서의 이미지는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다. 또 하나의 問題는 放送時間, 放送內容 또는 屋內보다 屋外娛樂의 反作用 등으로 家庭用電子製品의 拡大를 助長하는 与件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도 問題의 하나다. 技術的인 側面에서의 非凡한 製品, 또는 ITT가 發表한 劃期的인 製品의 登場이라는 評價와는 달리 一般的인 反應은 과연 商品化될 수 있을까 하는 데 있다. 以上과 같이 歐洲情勢는 悲觀的인진 하나 앞으로의 展望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 밝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오디오는 期待밖이고 컬러 TV는 제자리 걸음 내지는 現狀維持가 고작이며 비디오製品은 期待되고 있으나 絶對數量은 아직 少量에 不過하다. 앞으로 家庭用分野에 있어서 비디오部門이 本格化되지 않는다면 電子部品市場으로서의 興味는 사라지게 된다. 現地 電子部品企業들의 말을 빌린다면 家庭用分野를 가볍게 본다는 뜻은 아니지만 情報 關聯機器 또는 컴퓨터 自動車 등에의 期待가

엿보인다.

■ 歐洲의 새로운 意慾

지금 歐洲의 各國 政府는 不況을 극복하기 위해 産業再建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各企業에서도 그와 같은 움직임에 호응하여 設備의 近代化, 合理化, 省力化를 推進하여 競争力 회복에 全力投球하고 있다. ZVEI(西獨電機電子工業會) 部品部와의 간담회에서 ZVEI 側의 어떤 代表는 「우리들은 美國 및 日本과 대등한 競争力을 갖추기 위해 自動化, 合理化, 省力化를 위한 投資를 이미 끝냈으며 따라서 앞으로는 保護貿易을 採擇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自身있게 밝힌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의 發言이 전체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의 發言을 뒷받침 할만한 現象을 例로 들 수가 있다.

設備의 近代化, 合理化라고 하면 인서트 머신의 導入이 代表的이지만 現在 日本에 인서트 머신의 注文이 쇠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유럽 전체적인 自動挿入機 設置台數는 現在 500~600 台로 推定된다). 一說에 따르면 필립스社의 工場은 컴퓨터 制御에 의한 自動檢査設備, 自動組立라인 등은 新銳工場으로 日本을 앞지르고 있다는 評이다. 이들 세트메이커들의 動向에 対応하여 現地 部品메이커들은 테핑部品, 또는 鋸의 供給體制를 갖추어 동시에 品質에 있어서도 美國이나 日本에 뒤지지 않는 製品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 또한 機構部品메이커인 새도우社는 多品種, 少量生産의 自動化에 成功한 努力의 발자취가 充分히 엿보였다.

■ 歐洲産業界의 問題點

政府를 비롯한 經營者들의 企業活性化에 대한 意慾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으나 여기에서 하나의 不安要因으로는 一般 勤勞者들의 作業에 臨하는 態度이다. 勤勞意慾은 매우 低調하고, 앞

으로의 産業發展에 커다란 沮害要因으로 指摘될 것으로 본다. 改善 意慾도 희박하며 作業能率도 日本에 비해 10對6 정도로 이와같은 勤勞意慾은 무엇에 起因된 것일까? 그 代表的인 理由를 몇가지 들어 보자.

1) 高福祉, 失業保險의 充實

말하자면 稅負擔의 比重이 크므로 勤勞意慾을 抑制하고 있다.

2) 前近代의 組合活動

아직까지 18世紀 産業革命 당시의 勞使關係를 維持하고 있다는 것이다.

3) 個人主義의 徹底

등등의 상당한 問題點들을 안고 있다는 것이 分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電子部品企業의 유럽進出에 대해

電子部品메이커의 現地生産에 있어서는 日本系 세트메이커들 보다 要求條件들이 嚴格하여 여러가지 要因들을 考慮할 必要性에 따라 여기에서 結論을 내리는 것은 留保하고 싶다. 다만 要件으로 考慮될 수 있는 몇가지 項目을 列挙하여 各者의 判斷에 맡기게 하고 싶다.

1) 유럽에 있어서의 日本系企業들의 市場은 日本, 東南亞에 비해 小規模인 것만은 틀림 없다. 設備投資를 하는 以上 經濟單位의 需要量이 確保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2) 下請企業들의 成長부진으로 內製化率이 높아 코스트高 要因이 되고 있다.

3) 勤務者의 質, 有能한 人材確保難 등을 考慮한다면 進出條件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2. 西獨의 電子業界 動向

■ 一般概況

西獨의 Consumer 市場의 오디오部門은 輸入

品에 圧倒되어 競争力을 잃은 狀態이며 命脈을 維持하고 있는 것은 컬러TV와 VTR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擴大成長은 바랄 수 없으며 現狀維持가 고작이다. 産業機器分野에 있어서는 컴퓨터, 情報關聯部門에 期待를 걸고 있으나 아직은 조용한 편이다. 다만 최근의 마르크貨의 安定으로 全般的으로 輸出이 늘어나 서서히 回復勢를 찾지 않을까 하는 觀測들이 나돌고 있다.

이상의 狀況에서 部品需要는 VTR의 現地生産이 活況을 보이지 않는한 어려울 것은 명백한 事實이다. 期待되는 産業機器分野에 있어서도 實需要와 連結하기에는 難點이 많으며 앞으로 상당한 努力이 傾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세트메이커의 動向

現地 세트메이커는 위기 의식이 강해 設備의 近代化, 合理化, 自動화를 적극적으로 推進하고 있다. 예를 들면 自動插入機의 大量 導入이 최근 急増하는 實情이다.

当地的 情報에 의하면 필립스社는 원에 있는 工場에 大規模의 VTR 生産을 위한 投資를 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年產 100万台 體制로 알려지고 있다. 그 設備은 컴퓨터 制御에 의한 生産, 調整, 檢査의 各工程을 대폭적으로 機械化 自動화하고 있어 日本을 앞지르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製品開發에 있어서의 当地的 認識은 技術開發, 장래성에 있어서는 결코 日本에 뒤떨어지지 않고 있으나 生産技術面, 즉 製品을 開發하여 生産하기까지의 短期間에 걸친 過程 등에서는 아직도 敵手가 못된다는 見解이다. 端的인 例로 ITT의 디지털TV用 IC의 發表가 있었으나 技術적으로 優秀하다고 評價가 높았으나 정작 製品化된다면 市場性에 있어서는 時間이 必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技術的인 면에서 自身을 나타낸 필립스, 구룬디히社의 VCR, 비디오 2000 시리즈에 대

해서는 現地에서 好評을 받고 있어 지금까지의 絶對的인 優位를 차지했던 日本勢에 來年부터는 약간의 變化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3. 英國 電子業界 動向

■ 電子部品業界의 実情

英國의 電子部品業界의 実情은 尙상의로 그 水準이 낮다. 納品時 品質, 性能面에서 全數量에 대한 檢査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部品메이커와의 去來에 있어서의 姿勢도 우리의 常識과는 曄觀으로 스스로 販路를 開拓하는 것이 아니라 注文이 들어와야 비로서 應한다는 姿勢이다.

日本系 企業에서는 自社の 檢査데이터를 部品메이커들에게 提供하여 製品生産에 뒷받침 되도록 指導하고 있는 実情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컬러 TV

英國政府를 비롯하여 그들 企業의 勸誘를 받아 日本系메이커의 進出이 가장 많은 英國에서 컬러TV의 生産現況에 대해 여러곳에서 聽取한 바를 集約한다면 大略 다음과 같은 數字로 나타난다.

- 總生産台數: 約 200万台/年
- 輸出台數: 約 30万台
- 輸入台數: 約 40~45万台

'81 메이커別 컬러TV 生産台數(予測)

쏘니	60万台
필립스	40 "
레디휴존	10 "
GEC日立	30 "
쏘니	16 "
松下	12 "
東芝	10 "
三菱	5 "

大同 10 "

대체적으로 컬러TV의 普及率은 50%.

4. 프랑스의 電子産業 動向

■ 産業政策과 電子産業의 定着

国有化에 따른 産業政策의 基本方向은 다음과 같다.

1) 製品 및 業種別로 大企業을 国有化하여 系列化를 企圖, 育成하고 輸入을 抑制하여 國內市場을 保護한다.

2) 鐵鋼을 중심으로 한 基礎資料部門을 整備한다.

3) 尖端産業, 특히 電子産業은 모든 産業의 基盤이라는 인식하에 外國技術에 의존치 않고 國內技術을 育成한다.

以上과 같이 미테랑政權의 産業再建의 가장 重要한 政策은 国有化에의 移行이다. 그 11個 對象 企業 중에 電機, 通信, 컴퓨터 등이 포함 된 것만 보아도 電子産業에 대한 重視政策을 엿 볼 수 있다.

■ 對外的인 影響

強硬策에 의해 經濟 및 産業의 再建을 피하려는 미테랑政策은 한편으로 國內産業을 保護하려는 意圖가 짙으며 過去보다 더욱 外國企業의 프랑스에의 進出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며 앞으로 나타날 問題點으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指摘될 수 있을 것이다.

1) 프랑스에 대한 投資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2) 技術的으로 프랑스政府의 支配下에 位置할 수 있는 産業의 進出은 거의 없을 것이다.

3) 多國籍企業은 企業의 政策 또는 戰略 등이 外的으로 決定되므로 프랑스 政府로서는 容認할 수 없게 된다.

○緊急資料·西歐의 電子市場 現況과 展望

* 国有化對象 11個 主要企業

會社名	業種	80年売上高 (億프랑)	従業員数 (人)
타스프레케	航空機	107	10,700
마도라	軍事部門	22	2,500
유지늘 사시롤	鐵鋼	170	34,200
	鐵鋼	120	25,000
로느프랑	化學	302	95,000
툼슨프란트	電機	365	140,000
베베시유지누올만	非鐵金屬	381	89,000
C G E	電機	425	170,000
산코만폰탐슨	建材	450	162,000
CII 하니웰폴	컴퓨터	69	20,000
루셀유그라프	醫藥品	53	17,000
ITT프랑스	電氣通信	38	44,000

5. 歐洲市場의 展望 (懇談會)

現地 部品메이커의 現況은 콘벤서, 抵抗器 등은 先進國 水準에 이르고 있다. 테핑부품도 작년부터 순조롭게 伸張하고 있다. 來年 이후부터는 抵抗器, 세라믹 등의 Chip 부품이 急伸張될 것으로 予想되며 現在에는 주로 튜너, 電裝品 등에 採用되고 있다. Chip은 供給이 따를수 없는 狀況이며 價格面에서도 惡影響을 미칠것으로 본다.

마크貨의 安定으로 現地價格은 1年前에 비해 約 30~40% 上昇될 것으로 予測된다. 세트메이커의 動向은 中間 마진을 排除하기 위해 日本 및 東南亞에서 直接 購入하는 例가 늘어나고 있다. Chip에 있어서는 카일렉트로닉스, 컴퓨터 部門점에서 크게 伸張될 것으로 予想되고 있으나 問題는 價格競爭의 激化이다. 現地の AV X社의 投売로 그 影響은 막심하다. 앞으로의 展望은 家電機器分野에서는 제자리 걸음이 분명하며 역시 産業用機器, 특히 郵政省 등 國家事業 쪽으로 開拓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새로운 움직임으로 購売方法에 있어서의 變化이다. 代理店 등을 通하지 않

고 日本 등에서 直接 購買하는 方法이다.

새로운 家庭用 Chip을 現地에서도 生産을 시작했으나 아직도 供給부족 現象은 否定할수 없다. 세라믹 Chip은 現在 需要는 1~1.5億個 受注베이스로 2億個에 달한다. 그러나 實際 供給은 1億個 정도이다.

半導體의 供給先은 주로 컴퓨터를 對象으로 하고 있으나 美國系메이커와의 競合으로 價格은 急激히 下落하고 있다. 일반적인 歐洲市場 現況은 TV 部門은 現象維持 정도이며 오디오部門에 있어서는 작년에 비해 激減하고 있으며 産業用機器部門은 순조로우나 部品供給面에서 日本 메이커間的 競合이 극심하다.

■ 西伯林 展 後評

現地 駐在員들의 솔직한 印象을 다음에 列挙해 본다.

- 스테레오 TV가 出品되었으나 基本設計에 있어서는 變함이 없었다.

- 스테레오放送은 1個局으로 視聽者는 約 5% 정도.

- VTR은 이번 展示의 核

- 하이파이에 있어서는 低價格製品의 展示가 主宗을 이루었고 디자인面에서 본다면 日本製品이 큰 變化가 없었던 反面에 韓國, 台灣 등 製品이 같은 水準에서 競合하고 있었다는 것이 注目된다.

* 歐洲 主要國의 家庭用電子機器 生産台數 (推定)

(單位: 1千名)

品目	1981			
	컬러TV	黑白TV	카·라디오	其他오디오
西 独	3,050	150	2,600	2,500
英 国	2,000	600	450	350
프 랑 스	1,000	320	2,000	800
이탈리아	750	550	450	340
其 他	2,400	600	500	750
計	9,200	2,220	6,000	4,740